

##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 투트모스 3세의 과거인식과 개인정체성

곽 민 수\*

### [국문초록]

고대 이집트 신왕국의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와 그 뒤를 이은 투트모스 3세의 관계는 학계와 대중매체 양쪽 모두에게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양자의 관계는 투트모스 3세가 단독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 이후에 복수심을 가지고 과거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 하트셉수트의 흔적들을 제거하였다고 설명되어 왔지만 실제의 과정은 그보다 복잡한 것이었다. 투트모스 3세는 선왕이었던 하트셉수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단독 재위기 후대에 이르러 새롭게 부각된 아멘호테프 2세의 왕위계승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으로 인하여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말살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존중과 파괴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하트셉수트와 본인과의 비교 및 대조는 투트모스 3세는 본인의 개인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 고고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이집트학, 이집트 고고학, 신왕국, 18왕조, 투트모스 3세, 하트셉수트, 카르낙 신전, 기억의 고고학, 역사적 주체, 개인 정체성  
Egyptology, Egyptian archaeology, New Kingdom, 18th Dynasty, Thutmose III, Hatshepsut, Karnak Temple, archaeology of memory, historical subject, individual identity

파라오의 성찰은 이집트 신왕국의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

카르낙 신전은 양 파라오의 건축행위가 겹쳐지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고고학적으로 관찰되는 하트셉수트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투트모스 3세의 건축행위는 그의 하트셉수트 치세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의 변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의 사후 직후에는 그녀의 기념물들을 유지·보수하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그녀의 기념물들은 물론 그녀에 관한 기록 자체를 파괴하였다. 하지만 하트셉수트가 애초에 카르낙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는 그녀의 기념물들이 파괴된 이후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트셉수트의 업적을 뛰어넘기 위한 투트모스 3세의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투트모스 3세의 개인적 정체성이 반영된 이 시도는 건축행위에서만 아니라 이집트 국가정책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결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집트 신왕국의 제국주의 정책은 이후 이어지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의 사회문화적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1. 서론: 역사적 주체와 그의 과거인식

이집트 신왕국의 파라오 투트모스 3세(Thutmose III, 재위 1479-1425 BCE)<sup>1)</sup>와 하트셉수트(Hatshepsut, 재위 1479-1458 BCE)의 관계는 학계와 대중매체 양쪽 모두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두 파라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한 하트셉수트에게 오랫동안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하트셉수트 사후 단독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이후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흔적들을 제거했다고 설명되었다. 이 전통적인 설명은 여전히 이집트학 관련 대중서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학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부정되기

1) 본고의 편년은 Baines와 Malek의 *Cultural Atlas of Ancient Egypt*(2000)를 따른다.

시작하였다. 도르만<sup>2)</sup>은 님스<sup>3)</sup>의 선구자적인 문제제기를 토대로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 재위기에도 군대를 지휘하는 등 공동 파라오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종의 황태자 수업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트셉수트의 유산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파괴행위는 하트셉수트의 사후 약 20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료 및 문헌 자료들을 토대로 증명하였고 따라서 투트모스 3세의 하트셉수트 유산에 대한 파괴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르는 것이기 보다는 훗날에 새롭게 부각된 아멘호테프 2세(Amenhotep II, 재위 1426-1400 BCE)의 왕위계승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재 이 집트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도르만의 학설을 토대로 기존에는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 당했던 시기로 여겨졌었던 두 파라오의 공동 통치기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제1파라오 하트셉수트가 제2파라오인 투트모스 3세와 함께 집권했던 시기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역사적 성찰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하트셉수트와의 공동 치세에 대한 투트모스 3세의 인식과 평가는 과거에 대하여 현재의 자아가 보이는 반응이다. 특정한 개인이 과거를 성찰하는 것, 다시 말해 현재의 자아가 과거를 해석함으로써 그 과거와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특히나 자아가 역사적 주체(historical subject)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수행자(agent)일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과거는 현재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위수행자에 의해서 동원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차별성 혹은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효율적인 전략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자주 통시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배치(기념물

2) P. F. Dorman (1988), *The Monuments of Senenmut*,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3) C. F. Nims (1966), "The date of the dishonoring of Hatshepsut",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93, pp. 97-100.

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 등)보다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4)</sup> 둘째,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는 그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게 되고, 과거의 자아가 현재의 자아와 같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으로 작동한다.<sup>5)</sup> 이 두 번째의 중요성은 심리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역사학적 연구에서는 자주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행위수행능력(agency)을 분명하게 갖고 역사적 주체로 활동했던 개인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역사학적으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sup>6)</sup> 본고에서는 이 두 번째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투트모스 3세의 사례는 특히나 ‘기억되는 근(近)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주체인 파라오의 인식과 반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투트모스 3세가 단독 파라오가 된 이후의 행적과 그 시기의 이집트 신왕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투트모스 3세의 하트셉수트 치세에 대한 인식은 두 파라오의 행위가 겹쳐지는 공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 과거에 세워진 건축물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그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건축 및 의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물질화된 과거(materialised past)”와의 조우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고고학적 자료로

4) J. Baines (2007), *Visual and written culture in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0-183.

5) S. B. Kelin (2001), “Memory and the Sense of Personal Identity”, *Mind* 121/483, pp. 677-702; B. M. Ross (1991), *Remembering the Personal Past: Descriptions of Autobiographical Mem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 이집트학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독일의 이집트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이 과거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연구하였다. 아스만은 아마르나 시대(Arna Period)에 개인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이전 시대에 대한 그리움을 J. Assmann (1994), “Ocular Desire in a Time of Darkness: Urban Festivals and Divine Visibility in Ancient Egypt”, *Ocular Desire: Sehnsucht des Auges. Yearbook for Religious Anthropology* (ed. by R. E. Aharon and J. Assmann), Berlin: Akademie Verlag, pp. 13-29.에서 언급하였다.

남아있는 과거 건축물이 그 건축물이 세워진 이후에 다루어지던 방식을 조사하는 것은 특정한 과거가 이후의 특정시점에 어떤 식으로 인지되고 평가되었으며 그 과거에 대한 이해가 현재의 행위를 통하여 다시금 어떻게 재구성-표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집트 룩소르에 위치한 카르낙 신전(Karnak Temple)은 이 조사에 적합한 유적이다. 카르낙 신전에서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가단위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스 3세 모두 이곳에서 활발한 건축행위를 하였다. 이곳에서의 면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가 남긴 건축물들을 다루는 방식과 하트셉수트의 유산을 배경으로 투트모스 3세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관찰을 토대로 투트모스 3세의 하트셉수트 치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 2. 역사적 배경

하트셉수트 재위기 동안 투트모스 3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투트모스 3세가 직접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당대의 기록들을 살펴봄으로 설득력 있는 추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트모스 3세는 매우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 투트모스

---

7) 이러한 인식은 ‘메터리얼리티’(materiality)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메터리얼리티는 ‘물화’(物化), ‘물질화’(物質化)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으나 번역어들은 ‘인간과 인간이 만든 물건의 재귀적 관계’라는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고 있지 못하여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한다. 메터리얼리티에 대한 논의들은 D. Miller (2005), “Materiality: An Introduction”, *Materiality* (ed. by D Mill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1-50; L. Meskell (2004), *Object Worlds in Ancient Egypt: Material biographies and present*, Oxford: Berg. 등을 참고할 것.

2세(Thutmose II, 재위 ?-1479 BCE)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새로 왕위에 오른 파라오가 어린 나이였기에 하트셉수트는 선왕의 부인 자격으로 섭정을 맡았다. 그녀가 섭정이 되는 과정은 이네니(Ineni)<sup>8)</sup>의 자전적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 그(투트모스 2세)의 장소에서 두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섰다. 그(투트모스 3세)는 그(투트모스 3세)를 낳은 이(투트모스 2세)의 왕좌에 올라 통치자가 되었다. 그(투트모스 2세)의 누이이자 신성한 배우자인 하트셉수트는 두 땅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sup>9)</sup>

이외에도 많은 문헌들이 ‘상-하 이집트의 왕 메네-케페르-라’(MeneKheperra)라는 투트모스 3세의 즉위명<sup>10)</sup>을 투트모스 2세에 이어 새롭게 왕위에 오른 파라오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에 프타호텝(Ptahhotep)이 남긴 ‘방문자의 낙서’라고 불리는 기록, 셈나(Semna)의 신전에 쓰여진 누비아 총독에게 보내진 왕의 칙령<sup>11)</sup>, 카르낙

8) 이네니는 아멘호테프 1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하트셉수트, 투트모스 3세 등 5명의 파라오를 연속해서 모신 이집트 신왕국의 고위직 건축가이다. 그가 자신의 무덤에 남긴 자전적 기록(autobiography)은 신왕국 초기의 역사적 사건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9) K. Sethe (1927-1930), *Urkunden der 18. Dynastie IV*, Leipzig: J.C. Hinrichs, pp. 52-63; J. H. Breasted (1906), *Ancient records of Egyp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42-143.

10) 신왕국의 파라오들은 출생명, 즉위명, 호루스 이름, 두 여주인의 이름, 황금의 호루스 이름 등 5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투트모스, 투탕카멘, 람세스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파라오들의 이름은 출생명인데 같은 출생명을 쓰는 파라오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즉위명을 갖고 있다. 예컨대 투트모스 3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메네-케페르-라’라는 즉위명을 사용하지만, 투트모스 2세는 ‘아아-케페르-엔-라’(Aakheperenra)라는 즉위명을 갖고 있다. 이 즉위명이 같은 출생명을 갖고 있는 파라오들을 1세, 2세 등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11) P. F. Dorman (2006), “The Early Reign of Thutmose III: An Unorthodox Mantle of

북쪽에서 발견된 아멘의 집사(the steward of Amen) 세넨무트(Senenmut)의 봉헌비석<sup>12)</sup> 등이 그 예이다. 이 문헌들은 모두 투트모스 3세를 투트모스 2세의 공식적 후계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트셉수트의 역할은 섭정으로 제한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위 당시 투트모스 3세는 10세 미만으로 매우 어렸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었던 하트셉수트는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트셉수트가 어린 투트모스 3세의 섭정이 된 것은 훗날 그녀가 직접 왕위에 오르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을 것이다. 실제로 하트셉수트는 결국 투트모스 2세 사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왕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다.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하트셉수트가 파라오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소한 투트모스 3세 치세 7년부터 하트셉수트는 공식 왕명과 왕의 상징들을 갖고 있는 남성 파라오의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한다.<sup>13)</sup>

하트셉수트가 제1파라오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투트모스 3세는 자연스럽게 왕권의 외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모스 3세가 왕권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것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제2파라오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공식 명칭과 함께 파라오로 묘사되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하트셉수트의 중요한 기념물인 카르낙 신전의 ‘붉은 예배실’[그림 2]이나 데이르 엘-바흐리(Deir el-Bahri)의 장례신전 등에서도 하트셉수트와 함께 파라오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투트모스 3세는 누비아에 남겨져 있

Coregency”,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ed. by E. Cline D. O’Conno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42.

12) P. F. Dorman (1988), pp. 29-31.

13) P. F. Dorman (2005), “Hatshepsut: Princess to Queen to Co-Ruler”, *Hatshepsut : from queen to pharaoh* (ed. by C. H. Roehrig, R. Dreyfus, and C. Keller),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 88.

는 여러 기록들에서 보이듯이 공동통치기 동안에도 활발하게 군사행동에 참여하였다.<sup>14)</sup> 하트셉수트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제1파라오로 여러 가지 업적을 행하였지만 흥미롭게도 그녀는 치세 전 기간에 걸쳐서 ‘파라오 께하 N의 치세 X년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왕위에 있는 파라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특권이었던 문구를 그녀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하트셉수트는 스스로 파라오가 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투트모스 3세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투트모스 3세를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은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될 수 없다. 모든 정황증거를 토대 볼 때에 하트셉수트는 그녀의 재위기에도 투트모스 3세를 왕위의 공식 계승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어린 투트모스가 온전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가교 정도의 역할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했던 노력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개인적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왕권이 재생산되는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기 노력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한다. 더불어 하트셉수트는 스스로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집트의 전통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행위들은 고대 이집트 전통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녀가 공을 들여서 재정비한 종교의례들은 오랫동안 테베(Thebe)<sup>15)</sup>에서 행해져 왔던 것들을 국가적 규모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파라오와 아멘 신의

14) P. F. Dorman (2006), p. 57.

15)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700km 가량 떨어진 현대 이집트의 룩소르(Luxor) 지역. 신왕국 시대에 번성하던 아멘(Amen) 신앙의 중심지였으며 중왕국 시대 이후 오래도록 종교적 수도역할을 하였다. 고대명은 우세트(ws.t).



직접적 관계를 강조하려는 하트셉수트 특유의 노력 역시 고왕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습관에 바탕을 둔 것이다.

만약 하트셉수트가 위의 추측대로 투트모스 3세의 안정적인 왕권계승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면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 치세 동안 철저한 제왕교육을 받았을 것이며 일정 연령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제2파라오로서의 역할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또한 하트셉수트 사후 자신이 단독 파라오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여건에서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에게 복수심 등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가 하트셉수트에 대하여 신뢰와 존경 등의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이 긍정적 평가에 대한 반대급부로 열등감에 가까운 감정과 그 감정이 바탕이 되는 하트셉수트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추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3. 하트셉수트의 유산

#### 3.1. 카르낙 중심부와 붉은 예배실

이번 장에서는 하트셉수트가 카르낙 신전에 남긴 기념물들을 분석함으로써 투트모스 3세가 실제로 경험하였을만한 물질적 조건들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투트모스 3세는 하트셉수트와의 공동 통치기 동안에는 물론 하트셉수트 사후 단독 파라오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트셉수트가 남겨놓은 물질적인 흔적들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하트셉수트는 치세 내내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그녀의 왕위 등극이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녀가 다른 파라오들과는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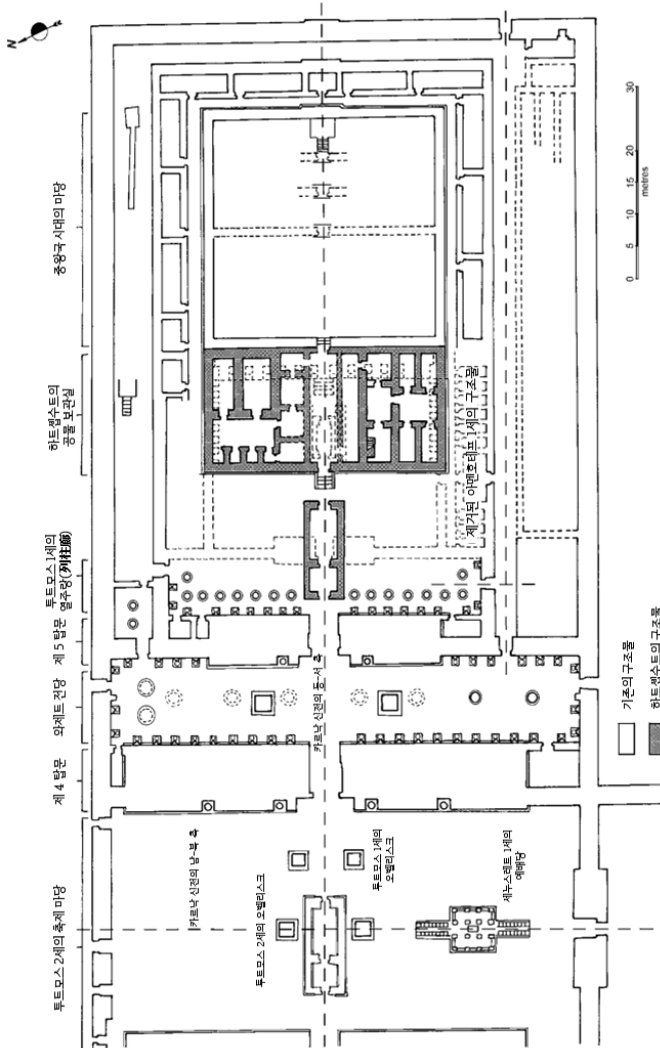
이 다른 여성이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확인될 수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노력이 단지 그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왕권의 효과적인 재생산을 위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정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트셉수트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 투트모스 2세와의 혼인관계 보다는 그녀와 투트모스 1세(재위 1493-? BCE)와의 모녀관계를 강조하였다.<sup>16)</sup> 더 나아가 아멘 신이 그녀의 출생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신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창조된 역사를 시각화시키기 위하여 오페트 축제(Opet Festival)와 아름다운 계곡의 축제(The Festival of Beautiful Valley) 등 국가규모의 축제들을 재정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념물들을 남김으로 카르낙 신전을 포함한 축제의 무대가 되는 테베의 경관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하트셉수트가 남겨놓은 물질적 흔적들은 대부분 그녀의 정치적 목적이 표상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가 남긴 다수의 기념물들은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설치되었을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념물들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념물들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트셉수트는 카르낙 신전의 중심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그림 1). 우선 그녀는 중왕국 시대 신전에 설치되어 있던 오시리스형(形) 기둥들과 신왕국 시대 초기 아멘호테프 1세(재위 1514-1493 BCE)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전의 앞마당 부분을 제거하였다.<sup>17)</sup> 그리고 이 장소에 여러 개

16) 부부였던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스 2세는 모두 투트모스 1세의 자식이지만 어머니가 다르다. 하트셉수트의 어머니는 투트모스 1세의 제 1 부인이었던 아흐모세(Ahmoise)이며 투트모스 2세의 어머니는 후궁이었던 무트네페레트(Mutneferet)다. 투트모스 3세의 경우에도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투트모스 2세의 제 1 왕비였던 하트셉수트가 아니라 후궁이었던 이세트(Iset)이다.

17) J. F. Carlotti (1995), "Mise au point sur les dimensions et la localisation de la chapelle d'Hatshepsout à Karnak", *Les Cahiers de Karnak* 10, pp. 141-166.



출처: Carloti 1995

[그림 1] 하트셉수트 치세 말기의 카르낙 신전 평면도  
본 도면에서 붉은 예배실은 마아트리의 궁전 앞에 배치되어 있다.



출처: 필자

[그림 2] 붉은 예배실에 새겨진 축제의례 장면. 신관들이 성선을 짊어지고 행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성선 뒤편에 서 있는 두 명의 파라오를 가운데에 앞쪽의 인물이 하트셉수트, 뒤쪽의 인물이 투트모스 3세이다.

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아트’의 궁전’이라는 이름의 독특한 구조물을 건설하였고<sup>18)</sup> 이 구조물의 인근에는 붉은색 화강암과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성소를 설치하였다. 이 지성소(sanctuary)는 성선(聖船)[그림 2]을 안치하기 위한 곳으로 ‘아메니 좋아하는 곳’ 혹은 ‘아메니의 마음을 위한 장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붉은 예배실’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그림 3].<sup>19)</sup>

붉은 예배실은 하트셉수트 사후 해체되어 카르낙 신전 내의 다른 구조물들을 짓는데 사용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학자들이 해체된 부분을 신전 곳곳에서 발견하여 복원을 시도하였다. 복원 작업은 1997년에 마무리 되어 붉은 예배실은 현재에는 카르낙 신전의 ‘옥외 박물관

18) L. Gabolde (1998), *Le “grand château d’Amon” de Sésotris 1er à Karnak: La décoration du temple d’Amon-Rê au Moyen Empire*. Paris: Diffusion de Boccard; (1999), “Aux origines de Karnak: Les recherches récentes dans la ‘cour du Moyen Empire’”, *Bulletin de la Société d’égyptologie Genève* 23, pp. 31-49.

19) 이집트학계에서는 프랑스어인 Chapelle Rouge로 불리는 경향이 있다.



출처: 필자

[그림 3] 카르낙 신전의 옥외 박물관에 복원된 붉은 예배실

관’(Open-air Museum)<sup>20)</sup>에 재설치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붉은 예배실의 정확한 원래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두 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르고스 등은 ‘마아트’의 궁전’ 내부에 예배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제안하였으며<sup>21)</sup> 카를로티는 ‘마아트’의 궁전’ 바로 앞을 예배실의 원 위치라 주장하였다.<sup>22)</sup>

### 3.2. 오페트 축제와 카르낙의 남-북축

붉은 예배실의 원위치는 불분명하지만 구조물의 목적과 기능은 분명

20) 카르낙 신전에서 해체되었던 구조물들을 복원하여 신전 한쪽에 재설치 해놓은 공간.

21) F. Burgos, F. Larché, and N. Grimal (2006), *La chapelle rouge: Le sanctuaire de barque d’Hatshepsout, Vol. 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2008), *La chapelle rouge: Le sanctuaire de barque d’Hatshepsout, Vol. II.* Paris: É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22) J. F. Carlotti (1995), pp. 156-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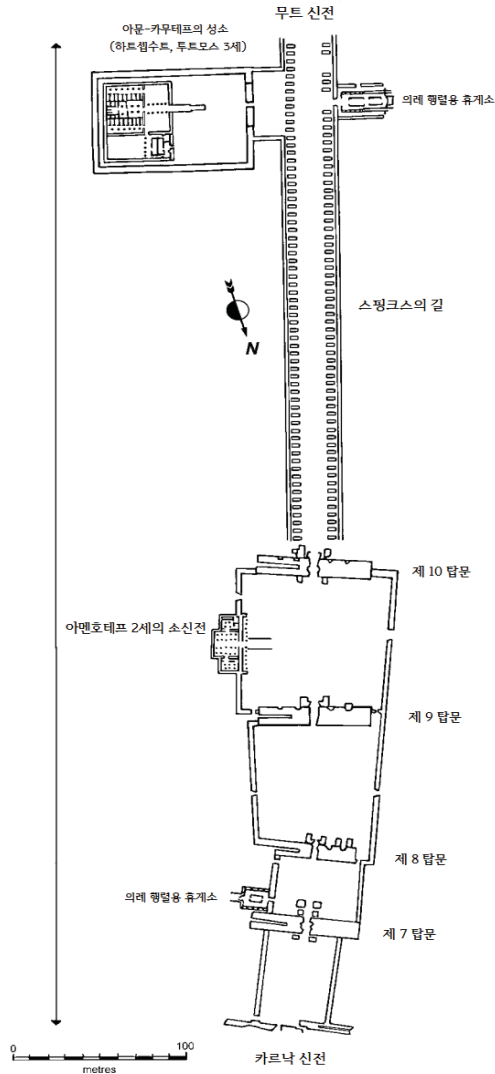
하다. 이 구조물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아멘의 성전을 안치시키는 지성소로 사용되었다. 대규모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의례의 과정에서 아멘 신상(神像)을 실은 성선은 사제들의 어깨에 실려 성소에서 나와서 축제 행렬의 주체가 되었다[그림 2]. 오페트 축제는 신왕국 시대의 여러 의례들 가운데에서도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거행되었다. 이 축제는 하트셉수트가 기존에 테베 지역에 존재하던 지역 축제를 국가규모의 축제로 재정비한 것이다.<sup>23)</sup> 새롭게 성선 보관시설로 만들어진 붉은 예배실은 하트셉수트가 많은 공을 들여 축제를 재정비했음을 보여준다. 오페트 축제는 왕권의 재확인을 위한 축제로 기획되었으며 하트셉수트에 의하여 재정비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적 축제로 행해진다.

하트셉수트는 오페트 축제를 위하여 카르낙 신전의 남쪽에서 시작되는 의례용 도로도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트 신전, 룩소르 신전 등과 카르낙 신전을 연결하는 도로가 포장되었다[그림 4].<sup>24)</sup> 축제의 의례에 사용되는 도로의 포장은 의례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더러 의례의 시각적인 장엄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포장된 도로는 하트셉수트 치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제의 경로로 사용되었으며 후대에는 도로 양쪽에 스팅크스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제8탑문이라고 불리는 카르낙 신전 남-북 축에 위치한 탑문 역시도 하트셉수트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이 탑문은 오페트 축제 기간에 사용되던 의례용 도로가 시작하는 카르낙 신전의 남쪽 입구로 사용되었다.<sup>25)</sup> 축제 기간 중 성선은 이 탑문을 통해서 신전 경내를 빠져나왔으며 이후 남쪽으

23) R. G. Robins (1997), *The Art of Ancient Egypt*. London: British Museum Press, p. 132; C. Graindorge (1993), “Naissance d’une chapelle reposoir de barque”, *Hatchepsout: femme pharaon, Les Dossiers d’Archeologie* 187. p. 46.

24) B. Kemp (1989), *Ancient Egypt: Anatomy of a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p. 206.

25) E. Blyth (2006), *Karnak: evolution of a temple*. London: Routledge, p. 36.



출처: Kemp 1989

[그림 4] 카르낙 신전과 무트 신전 사이의 의례용 도로. 제9탑문과 10탑문은 하트셉수트 이후의 파라오인 아멘호테프 3세와 호렘헵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었다.

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룩소르 신전으로 향했다. 하트셉수트는 룩소르 신전과 카르낙 신전 사이의 의례용 도로 상에 여섯 군데의 휴게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sup>26)</sup> 이 휴게소들은 축제기간에 행해지는 행렬에서 성신을 어깨에 짊어지던 신관들의 휴식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3.3. 카르낙의 동-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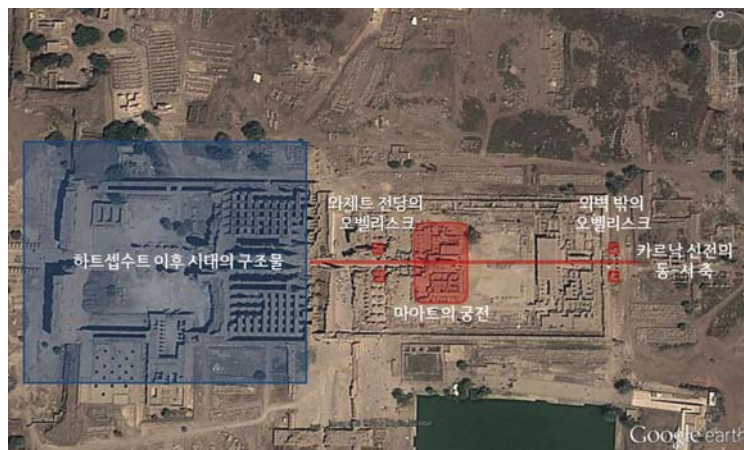
카르낙 신전 내부에서는 ‘와제트 전당’(Wadjet Hall)이 하트셉수트 치세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투트모스 1세에 의하여 이곳에 세워진 석재 기둥들이 제거되었으며 대신 금박을 입힌 파피루스 형태의 목재 기둥들이 세워졌다. 전당의 중심부에는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한 쌍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졌는데, 이 오벨리스크들은 하트셉수트의 세드 축제(왕권 갱신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녀의 재위 16년에 세워진 것이다.<sup>27)</sup> 이곳에 설치된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기록을 통하여 하트셉수트는 아멘 신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sup>28)</sup> 이 한 쌍의 오벨리스크가 공간적으로 비교적 비좁은 와제트 전당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하트셉수트가 제5탑문을 신전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입구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4탑문 앞에는 투트모스 1세와 투트모스 2세가 세운 두 쌍의 오벨리스크가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트셉수트는 와제트 전당을 자신의 오벨리스크를 위한 장소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그림 1]. 만약 이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카르낙 신전의 다른 장소에서는 필요에 의해 이전 시대에

26) E. Blyth (2006), p. 38.

27) L. Bell (2002), “Divine kingship and the theology of the obelisk cult in the temples of Thebes”, *Ägyptologische Tempeltagung: Würzburg 23-26. September 1999, Vol. 5, Ägypten und Altes Testament* 33. Wiesbaden: Harrassowitz, pp. 21-22.

28) E. Blyth (2006), p. 55.





출처: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위에 필자가 표시

[그림 5] 카르낙 신전의 동-서축

건설된 구조물들을 쉽게 제거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하트셉수트가 붉은 예배실이 위치하고 있는 신전의 중심부에서 동서로 뻗은 카르낙 신전의 중심축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그림 5].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하트셉수트는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을 도외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전통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하트셉수트가 동-서축을 따라서 세워진 선대의 주요 기념물들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념물을 세워 전통적으로 카르낙 신전의 중심축으로 여겨지던 동-서축에 오페트 축제를 위하여 새롭게 정비된 남-북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실제로 하트셉수트는 와제트 전당에 세운 오벨리스크의 건설 장면을 역시나 동-서축 상에 위치하는 붉은 예배실의 벽면에 새김으로 두 구조물의 연관성을 드러내었다.

하트셉수트에게 카르낙의 동-서축의 의미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

었다는 가설은 그녀가 세운 또 다른 한 쌍의 오벨리스크의 위치로 다시금 강화될 수 있다. 하트셉수트는 카르낙 신전의 동쪽 끝 투트모스 1세가 건설한 석제 신전외벽 바로 바깥에 또 다른 한 쌍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웠는데<sup>29)</sup> 이 오벨리스크들 역시 동-서축 상에 위치한다. 이 오벨리스크들은 금박이 입혀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 와제트 전당의 오벨리스크를 능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한 쌍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장소에서 투트모스 3세가 하트셉수트 사후 ‘아크-메누’(Akh-menu)와 소신전을 세우는 등 후대의 파라오들이 많은 건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트셉수트 시대에 이곳에 오벨리스크 이외에 어떠한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정교하게 제작된 하트셉수트의 설화석고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에 구조물은 정확한 기능이 무엇이었던 구조물은 파라오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30)</sup>

또 다른 주목할만한 점은 카르낙 신전 외벽 밖에 세워진 이 한 쌍의 오벨리스크를 제작하는 과정이 데이르 엘-바흐리에 있는 하트셉수트의 장례신전에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sup>31)</sup> 나일 강의 서안에 세워진 이 신전이 카르낙 신전의 동-서축을 연장한 선상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6]. 카르낙 신전의 동-서축과 데이르 엘-바흐리를 연결하는 이 선 상에는 위에는 언급된 붉은 예배실, 마아트 의 궁전, 와제트 전당의 오벨리스크, 외벽 밖의 오벨리스크 등 하트셉수트의 주요한 기념물들이 모두 위치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하트셉수트가 카르낙의 동-서축과 데이르 엘-바흐리를

29) L. Gabolde (2007), “An atlas of the obelisks of Karnak”, *Egyptian Archaeology* 31. pp. 33-35.

30) E. Blyth (2006), p. 54.

31) L. Habachi (1984), *The obelisks of Egypt: Skyscrapers of the past*. Cairo: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pp. 60-63; p. 68.



출처: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위에 필자가 표시

[그림 6] 카르낙 신전과 테이르 엘-바흐리를 잇는 동-서축

잇는 거대한 축의 의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신전을 연결하는 거대한 축은 하트셉수트가 오페트 축제와 더불어 새롭게 정비한 ‘아름다운 계곡의 축제’에서 의례용 경로로 사용되었다. 이 경로 역시 후대의 파라오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계곡의 축제’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정비되었다.

#### 4. 투트모스 3세의 반응

##### 4.1. 하트셉수트에 대한 기억말살(Damnatio Memoriae) 프로젝트

다양한 기념물에 새겨진 하트셉수트의 모습과 이름은 투트모스 3세의 단독 치세가 시작된 이후 어느 시점부터가 물리적으로 제거되기 시작하였다. 하트셉수트의 모습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자리에는 봉헌용 테이블